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7호 [루계 제25085호] 주제 104 (2015)년 11월 3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반항공부대들의 고사로 케트 사격훈련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서부전선  
반항공부대들의 고사  
로 케트 사격훈련을  
보시였다.

황명서동지, 리영길  
동지, 오금철동지,  
윤동현동지, 리병철  
동지와 국방과학부문  
의 일군들이 동행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훈련장  
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인 항공군대장

최영호동지와 정치위원인 항공군상장  
손철주동지를 비롯한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사격훈련은 현대화된 고사로 케트들의  
기술상태와 서부전선 반항공부대들의  
실전능력을 검열판정하며 각종의 신형



요구에 맞게 고사로  
케트병 싸움준비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  
올 데 대한 당의  
군사전략적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중요  
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다종의  
신형고사로케트들을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의 항공방위임무  
수행에서 고사로 케트  
병들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  
하다고 강조하시면서  
항공 및 반항공군에  
서는 강도높은 훈련  
들을 통하여 고사로  
케트병들의 실전능력



고사로 케트들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방도  
를 찾아 반항공부문 싸움준비에서 전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목적을 두었다.

사격훈련에는 서부전선에 배치되어 있  
는 4개의 반항공부대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격장

감시소에서 반항공부대들의 실태와  
사격진행 순차와 방법에 대한 보고  
를 종합청취하시고 사격훈련을 보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격훈련

들과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에게 고사  
로 케트의 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고사로 케트의 현대화,

정밀화를 계속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을 더욱 완벽하게 갖추어나가며 국방파  
학부문에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다종의 신형고사로 케트 개발 사업을  
보다 적극화해나감으로써 적들의 그

어떤 공중타격으로부터도 조국의 푸른  
하늘을 철통같이 보위 할 수 있게 하여  
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국가반항공방어를 새로운 전략적수준  
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  
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켜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꽂피우자

## 혁명적인 관점으로 개척한 돌파구

자기의 일터와 초소, 마을을 당중앙위원회 땅과 같이 소통하고 고향땅을 사회주의 신경으로 꾸려려는 자작, 이것은 일군들이다.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관심을 바로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여 높은 실적을 내게 하는 중요요인이다.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하여 대통장 한 가운데 있는 수만m<sup>2</sup>의 섬들에 평균 6.5m, 최고 8m 높이의 용벽공사를 한데 이어 이곳을 훌륭한 체육기지로 전변시키고 있는 듀장구 일군들의 사업경험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그러면 이곳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방도시들》은 농촌마을들을 꾸리는데서는 때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고 자기 얼굴이 나타나게 하여야 합니다.]

국토관리사업 문제가 토의되던 날이었다. 도로기술개간과 강화현경리, 거리와 마을꾸리기 등이 토의되는 험의 회에서 구책 일군들은 베릴판단 섬을 체육기지로 전변시킬 안을 제기하면서 이번 주장을 놓았다.

관광들이 집중되어 있는 듀장구는 깊은 물풀기지과 고작은 강화현경리로 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적인 체육기지를 꾸밀만한 뜻이 없다. 있다면 구소재지결

### 득장구 일군들의 사업에서

에 있는 대동강의 섬인데 모래

바로가지고 사업을 전개하여 높은 실적을 내게 하는 중요요인이다.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하여 대통장 한 가운데 있는

수만m<sup>2</sup>의 섬들에 평균 6.5

m, 최고 8m 높이의 용벽공사를

한데 이어 이곳을 훌륭한 체육

기지로 전변시키고 있는 듀장구

일군들의 사업경험을 놓고 그렇

게 말할수 있다.

그러면 이곳 일군들의 사업경

험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방도시들》은 농촌마을들을

꾸리는데서는 때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고 자기 얼굴이

나타나게 하여야 합니다.]

국토관리사업 문제가 토의되던 날이었다. 도로기술개간과 강화현경리, 거리와 마을꾸리기 등이 토의되는 험의 회에서 구책 일군들은 베릴판단 섬을 체육기지로 전변시킬 안을 제기하면서 이번 주장을 놓았다.

관광들이 집중되어 있는 듀장구는 깊은 물풀기지과 고작은 강화현경리로 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적인 체육기지를 꾸밀만한 뜻이 없다. 있다면 구소재지결

이렇게 되어 구에서는 섬용벽공사를 위한 작업을 절차였

다. 다음날부터 수십대의 굽작기와 삼자, 자동차들의 발동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구인의 어버 기관, 기업소로 동자, 사무원들은, 가두인민반원들이 멀쳐나섰다.

관점이 바로서면 일속심이 생기고, 땅도 나지기 마련이다.

수만m<sup>2</sup>의 모래와 자갈을 파내면서 수천m<sup>2</sup>의 틀을 채워하여 용벽을 쌓아야 하는 막대한

공사파제를 놓고 일군들은 저마다 창발적인 의견들을 내놓았다. 그중에서 기술자, 기능공들은 용벽공사를 하고, 가두인민반원들은 틀을 보장하게 하자는 애니나 당시의 사상파 철학, 당정책옹위전이라고 하면서 설계도면을 보장할수 있기 때문이었다.

용벽을 쌓는 목적은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비가 내리거나 놀이 녹으면 물이 녹속으로 스며든다. 그런데 이곳은 섬이므로 물이 스며드는 정도는 정도가 있다. 그러므로 용벽에 갈지자모양으로 끗과 편을 묻어 물이 빠지게 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성과가 크기마다.

용벽공사에 이 방법이 도입되자 그들속에서 철제전의 방법으로 청소년체육학교건설

도 하자는 단은 제기되었다.

기발한 착상이었다. 구책임일군들은 즉시 떡방편성을 다시하였다.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그들이 펼친 것을 절친한 것은 잘 알았다. 이 문제를 놓고 한 일군이 섬을 체육기지로 꾸리는 것은 암울하게 하자는 애니나 당시의 사상파 철학, 당정책옹위전이라고 하면서 틀에 많으므로 얼마든지 너성들이 보장할수 있기를 원하였다.

용벽을 쌓는 목적은 흙이 무

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쌓았다가 뒤부분에 흙이 아니라 틀을 채워넣어야 한다.

다음은 땅죽으로 스며드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

이다. 흙이 무너져거나 흙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날짜와 달이 흐르면서 점차지면서 용벽이 밀려날수 있다. 이런 현상이나 타지 않게 하자면 틀을 효과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즉 돌파구를 콩크리트 흔합물로 용벽을

# 위대한 어머니당과 고마운 조국을 위해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바쳐가자

## 우리도 고향 땅의 주인들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우리 조국땅에 마련된 모든 혁명의 전취들을고 만년 대제의 기념비적 창조들을 우리는 우리 혁성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습니다.»

조선으로 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창성당이 물려보게 번 모여되어가고 있다.

온 나라 인민들 앞에 해마다 자기의 세력으로 모습을 펼쳐 보이는 창성이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가 하는 호기심을 안고 얼마전 창성당을 찾았던 우리는 산간지역에 새롭게 일떠선 멍청 이건축물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서 창조들을 속에 우리 창성 인민들의 피하는 노력을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내 하던 군의 한 일군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것이었다.

\* \* \*

지금으로부터 4년 전 10월 어느 날 저녁 군당책임일 군의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네맹원들은 돌격대를 무너 식료가공공장건설장을으로 나가는 내인들의 대력을 향해 절쳐졌다.

기발을 휘날리며 노래를 부르면서 식료가공공장건설장을으로 나가는 내인들의 대력을 향해 절쳐졌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 어머니를 찾으며 손을 훔들었고 남편들은 인혜의 모습을 알아보고 웃음을 지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보답 못한 창성의 주인들이 이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어깨에 실린 무거운

### 창성군의 내맹원들

인들에게는 힘에 부친다면 설복 하면 군당책임일 군이 한동안 말 없이 앉아있었다.

«책임비서동지, 우리도 창성 당의 주인이 아닙니까. 어떻게 계속 남의 도움만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토론했습니다. 창성당의 내인들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자고 말입니다.»

진정어린 그의 말을 듣기만 하면 군당책임일 군이 일어섰다.

«좋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으소. 아침에 늦게 나오고 저녁에는 빨리 집에 들어가는것이요. 그리고 힘든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것. 알겠소?»

«고맙습니다.»

이리하여 리남육동무를 대장으로 하는 내맹원들에 태어났다. 다음날 아침 류다른 통경이 절쳐졌다.

기발을 휘날리며 노래를 부르면서 식료가공공장건설장을으로 나가는 내인들의 대력을 향해 절쳐졌다.

나약해질세라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대조적의 순길이 있어 그들은 돌격대의 기발을 더 높이 추켜들었다.

아이들은 저녁 소대장 리분희

동무가 집마당에 들어서는데

나가는 내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어머니는 아직 못 들어오든지. 이젠 돌격대 일을 그만 두고 집일이나 했으면 얼마나 좋겠니.»

«할머니,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 이렇게 섯중

에서 누가 먼저 원수님께 기쁨을 드려나 보세요. 아마 어머니

### 가 이길거야요.»

«원 너석두. 우리 손자가 용

쿠나, 내 그저 해본 소리다.»

12살 난 아들과 시어머니의

말을 밖에서 들으며 그는 자기

를 떠올려주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다.

이렇듯 가정과 나를 먼저 생각하는 내맹원들을 비롯한 돌

격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창성은역원은 모든 편의시설

를 그려낸 것과 같은 봄사기지로 일어났다.

지금 그들은 군인병원건설

장에서 깨끗한 향심을 바치고

있다. \*

우리는 여기에 내맹원들 돌격대가 걸어온 행적을 일일이 다 적지는 못한다.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고 자식들도 있다. 그러나 조국이 있고 서야 가정도 있는 것이라 그들은 한가정민이 아닌 조국의 부

강변동을 위한 길에서 위험을

새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령님 그 이름 지어주신 창성이 낙마처럼 창성당에 뿌려내고 빛을 펴는 데에 만난 이내나마나가는 창성의 내인들.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사회주의 무도원으로 변모될 창성당의 빛을 보았다.

신 철

## 애국의 진군속도, 일행천리

◆ 우리 조국강산은 100년이 아니라 1년이면 물리보게 변하고있다. 전체 인민이 백두산혁명 군의 진군속도에 발을 맞추며 계속혁신, 계속 전진하고있다.

일행천리, 바로 여기에 항일대전의 위대한 승리의 전통이 비껴있고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의 력사가 함축되어있어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총공격기상이 빛날지고있다.

◆ 남들이 열걸음, 백걸음을 걸을 때 일행천리 하라! 이것이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바다를 항행하는 배의 속도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초속속비행기의 속도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야 한다. 평양시가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있고 평도업적단위들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군인들이 도식과 경직을 풀고 침체와 탑보를 배격하며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아로 일해야 한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비평정신은 일행천리로 대비약, 대혁신을 이어줄수 있게 하는 사상 정신적원천이다. 누구나 부탁되는 애로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평양시가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있고 평도업적단위들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군인들이 전투하는 건설장들에 가보면 현관마, 만리마를 달리는 우리 조국의 기상이 그대로 안겨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힘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성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행렬의 강행군속도는 수십상성 우리 조국의 눈부신 비약과 탈전의 원동력으로 되었다. 빈우에서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운 것도, 충도전의 불바람속으로 동당당사지의 일대 청성기를 펼친 것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한 것도 일행천리의 공격방식으로써 창작된 것이다.

모두다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백두의 선군형장 김정은同志 따라 빠져나가야 한다. 일행천리의 전군속도는 배우며 빠져나가야 한다.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는 심장속에 끓는 정치적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무는 어둠속에서 비에  
파헤쳐진 나무뿌리를  
훑으로 푸카는 두  
녀학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올해엔 이 나무에도 열매가  
열릴거야.》

그럼 우리 이 나무를 심은  
주침령이라는 오빠한테 편지를  
쓰자. 오빠가 심은 나무에 첫 열매  
매가 달렸다고 말이야.》

이런 말은 말은 나무에 끊어나가고  
나무가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오늘은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품은 천국의 열매였다.

그들이 열매를 품은 나무를  
나무가지에 붙은 이름표식을 비로  
풀어놓았어. 그들의 모습은  
온갖 열매를

